

- 주요 뉴스: EU 정상회의, 부분적인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에 합의
 -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, 역대 최고치. ECB 7월과 9월 금리인상 가속화 소지
 - 인도, 물가 상승 및 소비 부진으로 금년 1분기 성장률(4.1%) 1년 만에 최저
 - 중국 당국, 코로나19 극복 위해 33개의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 인플레이 억제 의지, 유로존 통화긴축 가속화 전망 등이 영향
 - 美 주가 하락(-0.6%), 달러화 강세[+0.1%, 금리 상승[+10bp]
 - 주가: 미국 증시는 연준 당국자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역대 최악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으로 0.7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물가안정 노력 강화 예상으로 강세 흐름 회복
유로화 가치는 0.4% 하락, 엔화는 0.9% 절하
 - 금리: 미국 국채금리는 연준 매파적 기조 강화로 채권 매도세가 강화되며 상승
독일 국채금리는 유로존 CPI 사상 최고치 기록 등으로 6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42.65원, +5.30원) 0.4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5/31일	5/30일	전일대비			5/31일	5/3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32.2	휴장	-	국채 금리 10y	미국	2.84	2.74	10bp
	유럽	443.35	446.57	-0.72%		독일	1.12	1.06	6bp
	중국	3,186.4	3,149.1	1.19%	CDS 5y	한국	45	43	2bp
	일본	27,280	27,369	-0.33%		중국	71	68	3bp
	한국	2,685.9	2,669.7	0.61%	위험 지표	EMBI+	-	-	0bp
환율	달러지수	101.78	101.67	0.11%		VIX	26.19	26.54	-1.32%
	유로화	1.0734	1.0779	-0.42%		WTI유	114.67	휴장	-
	엔화	128.67	127.59	-0.85%	원자재	구리	429.6	휴장	-
	위안화	6.6718	6.6614	-0.16%		금	1,837.4	1,855.2	-0.96%
	원화	1,237.2	1,238.6	0.1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,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U 정상회의(5.30~31일), 부분적인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에 합의

- EU 27개국 정상들은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수입의 2/3 규모를 당장 금지하고 연말까지 비중을 90%로 확대해 금수조치하기로 합의. 다만 헝가리, 체코 등의 입장을 고려해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은 일시 예외로 허용
-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 동부~우크라이나~동유럽을 거쳐 독일까지 세계 최장 길이 4,000km 송유관으로 하루 120~140만배럴 수송 캐파가 있으며,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의 1/3를 담당(나머지 2/3는 해상 수송)
- 발표 이후 국제유가(브렌트유)는 5.31일 장중 \$124.10까지 급등한 반면, 러시아 우랄유(Urals)는 디스카운트된 가격인 \$90 초반대에서 거래되었음
- 이번 6차 제재안에서 EU 정상들은 석유 금수조치 뿐만 아니라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(Sberbank)를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국영방송사 3곳의 수신을 막는 방안에도 합의
- 영국과 EU는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공동 금지에도 동의. 이로써 러시아는 런던의 로이드(Lloyd's)사의 해상 보험시장에서 제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예비치, 역대 최고치 경신

-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19개 회원국의 5월 CPI는 8.1%로 전월(7.4%)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시장 예상(7.7%)도 상회.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제외한 5월 근원 CPI도 3.8%로 전월(3.5%)보다 높아져 물가 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
-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오는 7월과 9월 각각 25bp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. 한편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, 라트비아 등 일부 중앙은행 총재들은 7월 50bp 빅스텝을 주장

■ 중국 5월 제조업 PMI, 봉쇄 완화로 위축세 둔화

- 5월 제조업 PMI는 49.6으로 전월(47.4, 26개월래 최저치)보다 2.2p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. 주요 도시들의 통제 완화로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약화됐으나

이동 제한은 여전히 중국 내 생산과 수요를 억제하고 있어 성장률에 부담

■ 미 바이든 대통령,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

- 5.31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과 회동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발언. 현재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며, 미국 가계가 더 많이 소비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

■ 인도, 소비 부진 등으로 금년 1분기 성장률 1년 만에 최저

- 높은 인플레이션과 러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금년 1분기(인도의 '21/'22년 회계연도로는 4분기) GDP 성장률은 4.1%로 전분기(21년 4분기 5.4%) 대비 둔화.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중앙은행(RBI)의 금리인상을 예상
- 이로써 '22년 회계연도(21년 3월~22년 3월) 성장률은 8.7%로 예상(8.9%)을 하회. 정부는 '23년 회계연도 성장률이 7.0%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

■ 중국 당국,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3개의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

- 지난주 국무원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된 패키지에는 재정, 금융정책과 투자·소비 진작, 식량·에너지 안보, 산업 및 공급망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는 33개의 조치들이 포함. 향후 부가가치세 공제 강화, 재정지출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등이 가속화될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3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: 106.4, 4월(108.6), 예상치(103.6)
-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: 8.1%, 4월(7.4%), 예상치(7.7%)
- 중국 5월 제조업 PMI: 49.6, 4월(47.4), 예상치(49.0)
- 중국 5월 서비스업 PMI: 47.8, 4월(41.9), 예상치(45.5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5월 제조업지수, 신규주문, 구매물가지수, 유로존 4월 실업률
- (6.1일) 美 연준 \$8.9조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. 美 베이지북 발표.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 예정. (6.2~3일) OPEC+ 증산 회의에서 러시아 제외 논의. (6.3일)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발표